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동아시아사] 분석

1. 출제 경향

① 총평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부터 불교, 율령 체제, 성리학, 무역과 문화의 교류, 시대별 동아시아 국제 관계 등 단위별 핵심 개념을 다양한 사료와 지도, 통계 자료를 통해 수험생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주제와 문항 형태는 유사하지만 답지의 경우 기출 문제를 의식하여 새로운 답지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6월 모의평가와 같이 시대적 흐름과 함께 주제사인 동아시아사의 성격을 반영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으며, 특히 EBS 교재와 방송에서 나온 개념과 지도 및 그래프, 그리고 문항을 변형하여 출제한 문항이 많았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 환경과 역사적 특징을 묻어 학생들이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동아시아사의 학습 목표를 문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되었다. 문항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점차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아시아사는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많지 않아 대체로 문제 출제 형태는 같지만 답지의 내용이 보다 세부적이고 어려워지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사 문항은 처음에는 생소한 내용이 많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단위별 문항 배분이나 출제되는 문항의 주제들이 일정한 틀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대비하는 것은 다른 역사 계열 과목에 비해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제경향 특징 3가지

하나. 단위별 안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동아시아사의 특징적인 문항이 출제되었다.
둘. 지도, 사료 등 다양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변형하여 이용한 문제가 많았다.
셋.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이 높은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② 파트별 세부 출제 경향

6월 모의평가에서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부분은 일본의 선사 문화,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 한 대의 동아시아 정세 등 3문항이 출제되었다. 일본의 조몬 토기는 거의 기출 문제에 가까운 평이한 문항이지만 나머지 2문항은 신유형 문항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부분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 동아시아 정세, 율령 체제의 영향, 불탑, 백제의 대외 관계 등 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개념 위주의 평이한 문항들과 세부적인 문항이 섞여 출제되었다. III.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부분에서는 일본의 성리학 발전, 일본의 국력과 중국의 고증학, 몽골 제국의 성립과 당시 동아시아 정세 등 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몽골 제국 당시 동아시아 정세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출제되었다. IV.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부분에서는 조선후기와 일본 에도 막부 시대의 경

제 상황, 임진·병자 전쟁 등 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임진 전쟁 중의 전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전쟁의 영향을 파악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V. 국민 국가의 모색 부분에서는 청·일 전쟁, 철도 부설, 일본의 메이지 헌법과 대한 제국의 대한국 국제 비교, 3·1 운동과 5·4 운동 등 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실 파악을 묻는 문항이 많았다.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부분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베트남 전쟁 등 2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일본의 역사 왜곡 문항은 시사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2. 난이도

〈2013년 3, 4월 학력평가/2013년 6월 모의평가와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3년 3월 전국학력평가와 비교	2013년 4월 전국학력평가와 비교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비교
동아시아사	약간 어려움	어려움	약간 어려움

9월 모의평가는 2013년에 실시하였던 3월 전국학력평가보다 약간 어렵고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보다 어려웠으며,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다. 동아시아사라는 새로운 과목이 탄생하여 문항 출제가 진행되면서 이전 출제 문항과의 중복을 피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답지로 등장하면서 다소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다. 대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충실한 내용으로 주제사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이전보다 확실히 세부적인 내용이나 사실 등을 묻는 문항이 많아져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이 많았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이나 EBS 연계 교재의 자료나 지문보다는 답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동아시아사 전범위가 출제되었고, 한 나라에 해당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 둘 이상의 국가의 공통점이나 국제 관계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동아시아사 문항의 특징을 잘 반영하였다. 특히 고난도 문항은 시기별 동아시아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제에 따라 매우 평이하고 상식적인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EBS 연계 교재와의 연계도가 70%를 유지하여 EBS 교재를 평소 착실하게 정리한 학생들의 경우는 체감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난도 문항들은 적절하게 안배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충실한 기본적인 개념 확인 문제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문항이 많았다.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선지에서 문장이 어렵게 형성되거나 애매하게 느껴지는 문장도 있었다.

① 파트별 세부 난이도

6월 모의평가에서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부분에서 일본의 조몬 토기는 평이한 문항이지만 나머지 2문항은 상당히 고난도의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부분에서는 개념 위주의 평이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III.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부분에서는 몽골 제국 당시 동아시아 정세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IV.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부분에서는 임진 전쟁 중의 전황에 관한 세부적인 문항이 출제되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국민 국가의 모색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파악 문항이 많아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Ⅶ 오늘날의 동아시아 부분에서는 비교적 평이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② 고난도 문제

• 7번 - 제시된 자료는 철도에 관한 것으로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답지로 제시된 내용이 동아시아 각국의 철도 부설 시기와 철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다. 중국의 철도 부설 시기나 중국의 초기 철도 부설에 있어서 풍수 문제 등의 내용이 답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 13번 - 기원전 2세기경 동아시아의 정세를 복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을 것이다. 시기를 제시했지만 지도에서 국명은 대월지만 제시하여 당시 중국의 왕조가 한이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에도 당시 한반도에는 고조선, 베트남에서는 남비엣, 북방에는 흉노가 있었다는 것과 각국의 외교 관계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으로 동아시아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항이다. 흉노가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적 성격을 지닌 국가라는 내용이 정답인데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 되어 정답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신유형 문제

• 9번 - 그 동안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지 않던 차마고도를 출제하였기 때문에 차마고도에 관한 내용보다 지도에서 교통로의 위치를 찾도록 한 것이 특이하다. 동아시아사 문제라기보다 세계 지리 과목 문제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 동아시아사 과목의 융합적 성격이 잘 나타난 문항이지만 티베트 고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의 무대가 된 지역의 지리적 특징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① 연계표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 (내용요소)
1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p.12	6번
2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p.66	6번
3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p.139	5번
6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p.149	6번
7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p.120	6번
8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p.124	인구 증가와 도시화
10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p.69	심화학습
11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p.145	10번

12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p.32	5번
13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p.19, p.20	국가 체제 정비와 상호 교섭, 심화학습
16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p.39	중국, 한국, 일본의 탐
18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p.147	19번
19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p.32	7번
20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p.108, p.164	자료와 친해지기, 심화탐구

② 체감 연계도

동아시아사에서 출제된 20문항 중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에서 14문항을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며 연계율은 70%이다. 특히 9월 모의평가의 경우 개념 및 원리 연계보다 문항의 축소, 변형, 자료 및 지문 활용이 많아 학생들의 체감 연계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EBS 연계 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경우 연계된 대부분의 문제 형태를 매우 익숙하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1) 개념/원리 활용

• 대표 문항 : 8번, 13번, 16번

개념/원리 활용의 경우 8번, 13번, 16번의 3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8번 문제는 조선 후기와 일본 에도 막부 시대 도시와 상업 발달에 관한 문항이며, 13번 문제는 한 대의 동아시아 지도를 제시하고 당시 한 주변의 각국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16번 문제는 중국, 일본, 한국의 대표적인 탐을 제시하고 각 탐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2) 자료/지문 활용

• 대표 문항 : 7번, 10번, 12번, 18번

자료/지문 활용의 경우 6번, 7번, 10번, 12번, 18번, 20번의 6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주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요약 부분이나 심화 탐구의 자료, 혹은 문항에 제시된 자료나 지도 등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약간 변형시켜 활용하였다. 6번은 지도를 일부분만 제시하였고, 7번은 문항에 제시된 지문의 일부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12번은 문항에 제시된 도표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였고, 18번은 자료의 형태를 조금 바꾸었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이 출제되었다. 20번은 교재의 자료 분석과 심화 탐구의 자료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문항을 출제하였다.

(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 대표 문항 : 2번, 3번, 11번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의 경우 1번, 2번, 3번, 11번, 19번의 5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1번은 자료 가운데 일부분만 발췌하여 제시하여 문항을 축소한 형태이고, 2번은 주제는 동일하며 자료의 형태와 답지 제시 방식을 바꾼 문항 변형에 해당한다. 3번은 지문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발문과 답지도 유사한 경우이며, 11번은 자료는 다르지만 주제가 같고 답지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경우이다. 19번은 자료와 답지를 반대로 제시하여 문항을 변형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4. 대표 연계 문항

9월 모의평가 문항 3번	EBS 수능 특강 139쪽 5번
<p>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가) 이 학분은 에도 시대 중기부터 성행하였다.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중국적 사고 방식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심(眞心)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p> <p>(나) 한·당 시대의 혼교학을 계승한 학분이다. 황중희 등은 역사적 실증을 중시하여 이 학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객관주의와 실사구시를 강조하는 학풍이 성행하였다.</p> </div> <p>① (가) - 천황 중심의 국가주의적 색채를 띠었다. ② (가) - 고대 일본의 교전을 연구하여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③ (나) - 실측리와 지평합일을 주장하는 양명학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④ (나) - 정이 한족 중심의 화이상상을 탄압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발달하였다. ⑤ (가), (나) - 성리학에 대하여 비판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p>	<p>05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가)의 관직을 부르는 이름은 시기에 따라 연혁이 있어 그 명칭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중국과 우리 고유의 것이 섞여 있다. 시종, 낭중 등으로 부르는 것은 모두 중국의 관직 명칭으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별찬, 이찬 등으로 부르는 것들은 모두 우리 고유의 발로서 그 말하는 비의 의미를 알 수 없다.</p> <p>• (나)의 선조성에는 좌상과 좌평장사, 시종, 좌상사가 있어 의논하여 간하고, 중대성에는 우상, 우평장사, 내사가 있어 궁궐의 일을 고하며, 청대성(청당성)에는 내각상이 있어 좌우상위에 거하고,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어 복사(僕射)에 비교되는데 좌우평장사의 아래이다. 좌윤과 우윤이 있는데 승상과 같은 것이다.</p> </div> <p>① (가) -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한 이두를 사용하였다. ② (가) - 당의 국자감을 본뜬 유학 교육 기관을 세웠다. ③ (나) - 다이가 개신 이후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다. ④ (나) - 연호를 사용하여 독자적 국가임을 나타냈다. ⑤ (가), (나) - 당의 관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p>
<p>[발문/자료/답지 활용] 일본의 국학과 중국의 고증학의 특징을 묻는 문항으로 발문과 지문, 답지가 거의 같은 경우이다. 수능 특강 문항과 발문이 거의 똑같은 문항에 제시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답지의 제시 방식 및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제감 연계를 이 거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계 문항 형태이다.</p>	